

광주 불교단체 공모사업 본격 '시동'

빛고을나눔나무 2016년 선정사업 발표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을 위한 공모사업이 확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불교단체 공모사업을 지난해 말일까지 접수해 총 11개 단체에 2000만원의 지원금을 확정했다. 불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온 공모사업은 올해 3년째를 맞아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가 진행하는 '두 발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은 청소년들이 광주전에서 삼진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직접 제작한 부처님오신날 깃발을 매달아 트레킹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동원사(주지 지장)의 '나무숲 어린이 수계산림'은 어린이 포교가 열악한 지역 여건을 반영, 사찰과 친근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수계를 통한 스님과 인연 맺기, 수계기념 꽃동산 조성 등을 진행한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도 '광주소년원생들을 위한 불교문화잔치'를 연다. 연등 만들기, 위문공연, 선물전달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사회적응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광주전통등공방(단장 혜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이 실시하는 '지화연꽃과 목단꽃 감습회'가 매주 광주불교회관에서 열린다. 연잎 등 간단한 전통소재로 꽃을 만드는 강좌는 어린이와 청소년, 다문화



지난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실시한 공모사업 '두 발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

총 11개 단체에 2000만원 지원
청소년, 불교문화 사업 등 다채
2월 23일 지원금 전달... 3년째
"불교단체 활성화 도움되길" 당부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범회프로그램으로 보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방 측은 "매주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무료로 강좌를 개최해 사찰과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의 '광주시민사회단체에 전하는 붓다의 떡공양'과 광주시청불자회 '떡 나누기', 광주지방경찰청불자회의 '점등식'이 봉축을 맞아 광주시민과 공무원 불자들에게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 중 3년째 이어져온 '붓다의 떡공양'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50곳에 부처님 생일떡을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로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불교홍보를 위한 광주불교산우회(회장 김등수)의 불사 나누기, 광주불교방송의 '희망캠페인' 등도 진행된다.

빛고을나눔나무는 2월 23일 지원이 확정된 11개 단체에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각 단체에 통보했다.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해공 스님은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역적 한계와 불교단체의 미비한 활동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지역 불교단체가 바로 서야 불교계 활동과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해에도 15개 단체를 선정해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재가불자 큰별 정의행 법사 별세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

광주지역 유명한 불교활동가이자 시민사회단체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며 수십 년간 사회 참여와 생명 평화운동을 펼쳐온 정의행 법사(사진)가 향년 5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정 법사는 지난해 9월 발병한 급성 백혈구암으로 화순전남대병원 함암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2월 16일 밤 숨을 거뒀다.

1958년 전남 순천 출신인 정의행(본명 정철) 법사는 한때 봉선사 조실 윤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가 환속한 뒤 공단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했다 투옥되기도 했다.

1984년 무등민족문화회 참여를 시작으로 민중불교운동과 불교 계몽운동을 진행했다. 광주 불교교육원 설립, 평화실현 광주전남불교연대, 평화행동 '한걸음더' 등을 만들어 교육과 평화운동에 전념했다. 문민정사 청년회, 유머가사회 지도법사와 명상모임(우뱌사나) 광주전남 수행자모임 지도법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바지출판사를 운영하면서 33세 때 '한국불교통사'를 시작으로 저술과 번역서 20여 권을 출간했으며, 올해 초에는 광주불교연합회가 선정한 '빛고을 불자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추모회에 참여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 지원, 세월호 인양 촉구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하며 느낀 단상들을 담은 시집 <노란 리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장례는 이법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을 상임장례위원장으로서 불교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함께 '평화운동가 의행(정철) 법사 민주 시민장례위원회'를 결성해 18일 오후 8시 추도의 밤, 19일 오전 10시 노제(5·18민주광장), 11시 30분 영결식을 진행하고,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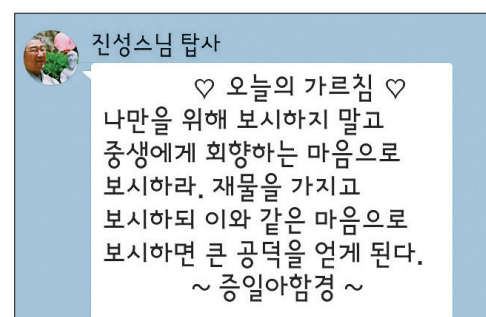
SNS '오늘의 가르침' 1000회 맞아

마이산 탐사 진성 스님 SNS로 불자들과 소통

진안 마이산 탐사 주지 진성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불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오늘의 가르침'이 2월 10일로 1000회를 맞았다.

대표적인 SNS인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를 통해 불자들에게 전달되는 진성 스님의 '오늘의 가르침'은 <법구경> <아함경> 등의 경전내용과 조사스님들의 어록, 사찰 법회 및 봉사활동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진성 스님은 "처음 나를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인터넷과 SNS로 연결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처음에는 불교TV의 부처님 말씀을 공유하다가 <천수경> <법성경> <부모은중경> <증일아함경> 등 경전내용을 매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해 1:1로 보내게 된 것이 어느덧 1000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의 '오늘의 가르침' 캡처.

2013년 5월 17일 처음 시작한 '오늘의 가르침'은 불자들 사이에서 점차 호응이 높아져 현재 소식을 받는 이가 300여 명을 훌쩍 넘겼다.

"사이버 전법은 시대적인 포교방법"이라는 진성 스님은 앞으로도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 사이버 전법단 같이 불법홍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사상 확산에 적극 나서자"

전주 화엄불교대학 27기 졸업식... 졸업생 76명 배출

전북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교육기관인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 금산사 주지)은 2월 14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불기2559학년도 졸업식을 병행했다.

화엄불교대학은 올해 불교대학 27기 76명, 학림원 22기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1년간 불교 기초교리와 경전공부, 실참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성우 스님은 졸업사에서 "지난 1년간 공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해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김길천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강철기·강미자·이경선 불자가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졸업하는 5쌍의 부부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 포교국장



전주 화엄불교대학은 2월 14일 불기 2559학년도 졸업식을 병행했다.

지월 스님, 기획국장 화평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백오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 단장 등 신행단체 임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식을 축하했다.

한편, 남원불교대학과 전북불교대학도 2월 17일과 21일 각각 졸업식을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종합복지관, 올해 첫 어르신 생신잔치

복지관 이용 어르신 100명 초청해 축하공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 스님)이 올해 첫 어르신 생신잔치를 열었다. <사진> 2월 17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어르신 생신잔치는 고창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어르신 생신잔치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중 1월과 2월 중 생신을 맞은 65세 이상 어르신 39명을 포함 1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흥겨운 잔치마당으로 열렸다. 송보경 외 2명의 춤바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생신잔치는 생일떡 케이크 자르기, 선물증정,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대원 스님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의 자리가 어르신들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일을 맞은 김인술 어르신은 "가족처럼 생일을 알아주고 챙겨줘 고맙다"며 "오늘 생일을 준비한 복지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직에 가린 낭만을
경쟁에 지친 젊음을
현실에 짓눌린 꿈을 채우며
대학의 가치를 되찾아온 동국대학교
2016년 보배로운 당신을
더욱 귀하게 맞이합니다



동국대학교 신입학 주요사항

수시 학생부 위주(종합) 전형 모집인원 확대 : 157명 증원

2016년 615명 → 2017년 772명

수시 모집 비율 확대

2016년 55% → 2017년 60%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학생부 반영과목 축소

2016년 12과목 → 2017년 10과목

수시 Do Dream 학교장 추천 전형 신설

정시 수능 반영 비율 변경

인문계열/예체능계열 II : 수학(20%→25%), 영어(30%→25%)

자연계열 : 과학탐구(20%→25%), 영어(30%→25%)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학생부 반영과목 축소	2016년 12과목 → 2017년 10과목
수시 학생부 위주(종합) 전형 모집인원 확대 : 157명 증원	2016년 615명 → 2017년 772명
수시 모집 비율 확대	2016년 55% → 2017년 60%
수시 Do Dream 학교장 추천 전형 신설	
정시 수능 반영 비율 변경	
인문계열/예체능계열 II : 수학(20%→25%), 영어(30%→25%)	
자연계열 : 과학탐구(20%→25%), 영어(30%→25%)	